

통권173호

발행일 2006.3.16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는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을 규탄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을 비롯한 통일단체들이 28일 정오 께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55차 평화군축 집회를 열고 지난 25일 부터 오는 31일 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 전시증원훈련)'과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E)' 중단을 촉구했다. [민중의 소리]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호현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지매 빨치산 박선애 박순애 선생 안전절 • 5 / 감옥에서 온 편지 김성환, 문상현 • 9 / 그 누가 민중의 생존권으로 거래하라 허락했는가 김환진 • 11 / 시한부 근로계약을 반대한다 • 13 / 회원미당 • 산행기 김환진 • 15 / 일립니다 • 17 / 감사드립니다 김호현 • 18 / 축시 • 마음의 편지 조순탁 • 19 / 시사만평 • 20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2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4 / 재정보고 • 31 / 회비를내주신 분들 • 32

愛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151 -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피땀으로 일궈온 평택들녘을 또다시 미군에게 빼앗길 수 없다

- 동족을 겨냥하고 동북아 패권을 노린 침략기지화. 온겨레의 힘으로 막아내자 -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회장

주권을 권력자에 양도한 적이 없는 시민들이여, 평택 대추리를 잊지 말자! 지금 대추리로 달려오라! 황새울에 둘러친 '한·미 권력자'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주민들과 함께 올해도 농사짓자!

아예 대추리로 거주를 옮겨 1년 넘게 주민들과 황새 울 들녘을 지키고 있는 평화바람, 평화유랑단장 문정현 신부가 대추리 현장에서 띄운 긴급호소문 한 토막이다. 국방 당국의 '행정대집행' 침탈에 대비해 신발끈도 안 풀고 옷도 벗지 않은 채 몇 날 밤을 지새우고 있는 행 동하는 사제, 노전사의 신념에 찬 절규였다.

대추초등학교는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국방부로 소유 권이 넘겨진 상태였다. '평택지킴'의 상징이 되고 있는 이 평화의 터를 침탈 점유하고 황새울 들녘 알토란 농 토에 철조망과 초소를 설치하는 등 '행정대집행'이 예 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비롯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속속 대추초등학교로 모여들었다.

전쟁과 살육의 땅이 아니라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평택들을 지키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밤늦게까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묵살하고 평택미군기 지 확장예정지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강행할 태세'라 며 '우리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원연 행을 불사하고 온몸으로 정부의 폭력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 했다.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팽성 대책위 평택대책위에 이어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고 이제까지 연인원 수만 명의 1, 2, 3차 평화대행진을 비롯하여 주민 촛불문화제, 트랙터 평화순례, 평택평화 포럼 등이 이어졌으며 나라 안뿐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프랑스, 미국 등전 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의 국제연대도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2월 24일엔 올해도 농사짓겠다는 '영농발대식'도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6일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 안 에 11개 경찰병력을 실은 경찰버스 20여대가 드러났다. 10시 20분 용역업체 직원 등 집행인 30여명을 이끌고 법원 집달관이 대추초등학교 관사에 살고 있는 두레풍 물보존회 손영민 단장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결정문' 을 들고 대추초등학교 정문에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 의 결의는 확고했다. 일제 때는 일본군에게 땅을 빼앗 겼고 6·25 전쟁 중에는 '전쟁수행명분'으로 또 다시 미군에게 땅을 빼앗긴 채 겨우 육지 끝 지금의 대추리 터에 자리 잡고 갖은 고생을 다 해가며 간척을 했고 이 제 겨우 먹고살만한 데 또 다시 땅을 내놓으라니. 이러 고도 나라에서 백성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느냐며 결사 항전의 자세로 맞섰다. 주민들의 저항에 집달리는 문서 도 보이지 못하고 물러섰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 병력 300여 명이 정문을 에워싸며 진격해왔다. 정 문을 지키고 있던 인권활동가들은 쇠사슬로 몸을 철문 에 묶은 채 스크럼을 짜고 완강히 저항했다. 그들은 외쳤다. '지금 이곳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 토지수용과 제국주의적 군사 재편은 결국 이땅 모든 민중들의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를 말살하려는 그 자체'라고 항변했다.

사복경찰이 다시 돌진해 왔다. 인권활동가들이 차례로 다수의 폭력 앞에 강제로 연행되고 있었다. 대추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긴박한 상황은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 소속 노동자 100여 명이 달려왔다. 경찰 병력도 증강되었다.

하루종일 이어진 공방이었지만 끝내 이날 투쟁의 영 웅, 박진 인권활동가는 정문을 지켜냈고, '행정대집행' 하수인들은 물러갔다. 오후 7시 552회 주민 촛불 문화 제도 진행되었다.

이렇게 평화와 생명의 땅을 지키려는 첫 싸움은 승리했다. 그러나 '한·미 권력자'의 약정에 다른 침탈점유시도는 이어질 것이다. 온 겨레 온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생명의 땅을 지키고 침략기지화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예정지는 평택시 서탄면 일대 K-55 송탄미군기지(218만평) 인접 64만평과 팽성읍 일대 K-6 안정리 캠프 험프리(154만평) 인접 285만평 등 349만평이다.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일대로의 확장 이전은 이른바한 · 미 연합 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등 미국의 신군사전략 실현요구에 따른 것으로 부시행정부는 이른바 1-4-2-1 전략이란 신군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군사변환'과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GPR)을 추진해 왔었다. 1-4-2-1 전략이란 ① 미본토 방어, ④ 4개 지역에서 전쟁행위 억지, ② 2개 전쟁에서 승리, ① 1개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목표로 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2001년 9월 〈4개년 국방개혁 검토 (QPR)〉에 따라 세계 주요 미군기지를 미군의〈전략적 유연성〉에 맞게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 해외 미군기지 관련 연구작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2002년 3월에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 한미동맹정

책구상(FOTA) 개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로써 미국은 신군사전략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체계조정에 관한 논의 틀을 마련했다.

미국은 LPP 협정 국회 비준 5개월만인 2003년 4월 미 2사단 재배치와 관련 LPP 개정협상을 요구했고 같은 해 부시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를 본격화하는 GPR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강요에 따라 2004년 7월 용산 및 LPP협정이 타결되고 10월에 정식 서명하여 해외미군기지 재배치 전략을 완성하게 된다. LPP 개정 협정으로 2002년 협정 때의 154만평보다 두배가 넘는 362만평(용산기지 이전부지 포함)을 한국 정부가 대체부지로 제공하게 되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이러한 미국의 해외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른 한 · 미 간의 굴종적 예속적 관계의 결과물이었다. 이미 주한 미군 2사단의 12,500명의 병력 감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부지를 더욱 확장하고 있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과 동북아에서의 군사 패권을 노린 중요 작전 기지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시도는 지난 1월 20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과 무관치 않다. 바로 주한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하는 전략기지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평택 미군기지에는 미태평양 공군사령부 산하의 미7공군 사령부가 있고 기지안 제 51전투비행단 아래에는 제 25, 36 비행대대가 있어 A-10, F-16 전폭기,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진 MH-53J 헬기와 미전략공군 사령부의 U-2기(첩보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안정리 캠프 험프리에는 대대급 패트리어트 미사일 군용부대가 있고 MD 기지로 구축돼 있다.

또한 육군 751 정보부대가 있어 이북과 중국 등 통신 감청을 하며 60여대의 공격용 아파치 헬기를 두고 있 다. 여기에 전략적 유연성 후속조치로서 '한반도 유사 시'미국 본토 등에서 투입되는 미군부대를 지원, 통합 하기 위한 501 증원지원 여단이 올여름 주한 미군에 창설한다고 '성조지'가 지난 2월 24일 보도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으로의 출동만이 아니라 전세계 미군의 한반도 투입도 염두에 두고있다고 했다. 따라서 주한 미육군도 기존의 사단(13,000여명) 중심에서 기동성이 뛰어난 3000명 규모의 여단 체제로 바뀐다고 했다.

이제 평택 미군기지는 이제까지의 '대한민국 행정권 이 미치는 곳의 외부 침공 등을 방어한다'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역할이 아니라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체 제 붕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작 전 계획 5027 등을 실행할 대북침략기지로 그리고 동 북아 패권을 노린 제국주의 확장의 전초기지로 노골화 되고 있다.

이러한 평택기지 확장에 한국정부는 피땀 흘려 일궈 놓은 농토 등을 대체부지로 제공하고 천문학적인 기지 이전비용까지 부담하며 동족을 죽이려는 주한미군에게 이른바 방위분담금까지 강요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은 끊임없이 한 · 미연합 사령부의 이름으로 대북공격을 위한 수많은 합동 군사훈련을 강요해 오고 있다. 바로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1주일간 이 땅의 전 지역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1)과 독수리 훈련(FE)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의 경우, 부산항에 키티호크 항공모함 전단 입항을 시작으로 경남 진해항 전남 광양항, 경기평택항에구축함 선단과 전략물자 수송선 입항, 강원 동해항에초고속 전장지원함 입항, 대구 스트라이커 부대 시범훈련 등 한반도 전지역에 미군 병력과 장갑차 항공모함과군함으로 뒤덮였었다.

평택 주민들은 외치고 있었다.

오는 미군 막아내고 있는 미군 몰아내라!

그렇다. 이제는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자세를 갖출 때이다. 예속과 굴종의 굴레를 벗겨 내야 한다. 자주통일과 반전평화,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실천으로 끌어안고 지켜야 한다.

먼저 우리의 현재는 6 · 15 공동선언시대이다.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까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상 · 이념 · 제도 · 정견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 대단합하기로 했다. 이북의 침공으로부터 이남을 방어하겠다며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주둔명분은 아무데도 없게 되었다. 평택 미군기지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미군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제 나라로 돌아가도록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한 분단 강요로 끝내 동족상잔이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 어떠한 침략전쟁도 반대할 터이지만 동족끼리의 전쟁도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과거 열강의 세력 다툼으로 본의 아니게 전쟁터가 되었던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 평택기지는 정면배치되고 있다. 평택기지 확장저지뿐만 아니라 동족을 겨냥하고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침략기지화에 반대하여 미군기지 폐쇄 투쟁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땅은 생명의 원천**이다. 평택땅은 수십 년에 걸쳐 식민주의, 제국주의 군대에 쫓겨가며 피 땀으로 일궈온 생명의 땅이고 주민들의 보금자리이다. 이제는 빼앗긴 땅도 찾을 때이다. 전쟁수단과 죽음의 땅에서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대추로 도두리 주민과 함께 반드시 평택들 황새울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남편, 큰 마음으로 북쪽으로 보냈지요"

— 전설적인 '자매 빨치산' 박선애·박순애 선생님을 찾아서

안진걸 | 코리아포커스기자, true@coreafocus.com



80의 고령에도 정정함과 기품을 잃지 않고 지난 날의 삶을 또박또박 말씀해주신 박선애 선생님. 동생이 중병을 앓고 있어 걱정이 대단하시다. 선생님께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한겨레신문, 한겨레건, 말지, 민족기, 양심수후원회 소식지 등을 매일 통독하신다고 한다.

ⓒ 안진걸 / 코리아포커스

지는 3월 7일, 온 대지에 봄날의 기운이 따스하게 퍼지던 오후, 박선애(80) · 박순애(78) 선생님 댁을 찾았다. 두 분과 박선애 선생님의 따님 고희정님이 함께 사는 집은 우이동 여운형 선생 묘소 바로 옆에 있었다.

한평생 조국의 독립과 자주적인 새 나라 건설을 애 쓰다 흉탄에 쓰러진 여운형 선생의 삶처럼 친 자매인 두 분의 삶도 일제와 미제에 맞선 조국해방과 통일의 그 길에 고스란히 바쳐졌고, 그 만큼 '간난신고'의 삶 을 살아왔다.

두 분은 일제 시대에 태어나 항일운동에 뛰어든 아버지의 영향과 함께 청년시절의 자각으로 한국전쟁 당시 전북지역 회문산 일대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그활동으로 박선애 선생님은 13년, 박순애 선생님은 9년 여의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두 분 선생님의 친 오빠는 48년 여 · 순 항쟁에 참여했다 처형 됐고, 막내 동생도 빨치산으로 한국전쟁 당시 토벌대 에 의해서 희생됐다.

고령의 두 분 선생님을 뵙자 안재구 선생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결산할 때 아무리 고통스러웠던 삶이라도 그것이 보람이 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아마도 두 분의 삶이 그러하셨으리라 감히 추정해보았다.

그러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했던가. 봄은 왔지만, 진정한 봄은 아닌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운형 선생이, 두 분 선생이 평생을 바래왔던 '진정 외세로부터 자주적이고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는 아

직 건설되지 않은 것이다.

박순애 선생님은 집에서 넘어진 것이 화근이 돼지 난 한 해를 병원에서 지내고 지금은 집에 와 계시지만, 여전히 많이 아프셔서 방에 누워계셔야 하는 처지이 신지라 박선애 선생님하고만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고령에 건강이 안좋은 상황에서도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선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음은 박선애 선생님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듣고 싶습니다.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이에요. 집안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보성전문학교를 고학으로 다니시고, 와세대 법대에서 공부한 후 한국으로 오셔서 3·1 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르시고. 그후에는 '새로운교육을 받아야만 일본에 맞설 수 있다'고 교육운동에 전념하셨죠. 오빠는 1919년생인데, 아버님이 감옥에게실 때 출생했어요. 아버지 성함은 박준창, 오빠 이름은 박훈. 특히 오빠가 여·순 항쟁에 참여했다가 끌려가서 숨졌는데, 아직까지 시체도 못 찾았어요… 비극입니다. 현재 조카랑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신청해놨어요.

우리 집안은 7남매인데 여·순항쟁 때 돌아가신 오빠가 큰오빠이고, 다음에 자매가 5명이고, 막내가 남동생이었지요. 남동생 이름은 박문규인데, 한국전쟁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입산해서 빨치산으로 투쟁하다 53년께 전북 회문산 일대에서 토벌대에 의해서전사했어요. 역시 시체도 못 찾았어요. 다섯 자매 중에서 제가 둘째로 위로 언니 한 분, 아래로 여동생 둘이었지요. 지금 같이 사는 순애가 바로 아래 여동생이어요."

─ 두 분 선생님께서도 빨치산으로 투쟁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남로당 소속이었어요. 50년 9월 28일 서울수복 즈음해서 남로당은 입산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도 회문산으로 입산해서 빨치산으로 활동했지요. 그러다 한국전쟁이 휴전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하산에서 지하활동을 시작했어요. 53년 어느날, 지하조직 활동을 전개하다 누군가의 실수로 조직이 노출 돼 검거돼 광주의대 운동장 포로수용소로 끌려갔지요. 당시 인민군 포로들은 거제도로, 빨치산들은 광주의대에 천막으로 수용해놨어요.

그때 1년 동안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탄압한 것이 정말 많아요. 포로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저녁이면 트럭에 시체를 싣고 어디로 가고그랬어요. 안에서도 저항활동을 하다가 프락치들이 있어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먹을 것도 안주고, 정말 비참한 생활이었지요. 그런 것 하나 하나 말 하려면 끝이 없어요. 차라리 형무소가 더 나았어요.

그러다 군법재판을 받아서 15년 형 선고받아서 대구, 공주, 서대문, 광주, 대전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65년도에 출소했지요. 중간에 3년 감형됐었어요. 동생은 포로수용소에서 대전형무소로 갔는데, 대전형무소는 당시 전국에서 살기 가장 힘든 곳이었고, 대부분의 사상범들도 대전형무소 시절이 제일 힘들었다고이야기 합니다. 대전은 간수부터가 악독했지요.

나는 서대문형무소에서부터 전향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거부하자 비전향자들은 격리시키켰지요. 그러다 5·16쿠데타가 벌어지고. 그 때 처단한다는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비전향자들은 무조건 대전으로다 모아놨어요.

동생은 대전에서 복막염으로 엄청난 고생으로 다죽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4·19가 발생했고 다행히 동생은 병보석으로 나왔어요.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아버지가 한의학을 공부해서 한약으로 치료를 해서 동생을 고쳐냈어요. 그런데 날마다 형사들이 와서 감시하니까 끝내 동생은 서울로 올라와서 아주 힘들게 살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건강이 더 안좋아요."

─출소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출소 후에는 저도 서울로 가서 살았어요. 시골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 아는 사람들이 '빨갱이'라 고 해서 도저히 살수 없었어요. 시골에는 여·순 항쟁 때 죽은 오빠의 이들 하나, 딸 둘, 올케가 살고 계셨죠. 아버님은 제가 출소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결국 임종을 못봤고요, 어머님은 저희들 어렸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나와서 통일운동만 하고 살려다, 통일운동을 하려면 동지가 있어야지 해서… 누가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남편(윤희보 선생님)을 만났지요. 그 이는 경기도 일대, 서울을 모르는 데가 없는 사람이고 운동을 도와줄 사람이다고 해서 결혼하게 됐고요.(웃음) 67년도에 결혼해서 딸 하나 낳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74년도에 사회 안전법으로 비전향장기수 출신인남편이 먼저 수감되고, 저도 74년도에 딸하고 길을 가고 있다 갑자기 연행돼 또 감옥생활이 시작됐어요."

— 그러면, 따님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게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그 때 길거리에서 제가 잡혀갈 때 우리 딸이 5살이었어요. 근데 억지로 딸을 때어놓고 짚차로 저를 잡아갔는데, 남자하고 다른 것이 감옥에서 하루 종일 우리 딸생각만 했지요. 감옥에 서도 아기 숨소리, 울음소리가 다 들리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전향서를 써서 나가라는 것이었지요. 얘가 어떻게 됐을까하는 고통 때문에, 길거리에 홀로 남겨졌던 얘가 미국으로 입양이라도 될까봐 너무 고통스러운 거에요. 물어볼 때도 없고, 그때 동생은 수배 중이었고. 스피커에서는 전향한 사람들의 전향서 읽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엄마가 애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상상도 못해요. 거의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전향은 할 수 없어서 버텼지요. 그 즈음 청주 보호감호소를 새로 지어서 비전향장기수들을 모아놨어요. 여자는 나 하난데, 전향서는 그래도 못쓰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어떤 검사하고 면회를 하게 돼서 제발우리 딸을 볼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검사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전향서 안 쓰고 나가게 해주었어요. 그게 79년도의 일이었어요. 훌쩍 5년이 지났죠. 나와 보니까 다행히 우리 딸은 수배 중인 내 동생이 데려다 키우고 있

더라고요.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그 때 동생이 동생이 우리 딸호적신고를 새로 해서 원래 우리 딸이 이름이 윤씨인데,지금도 고씨 성을쓰고 있어요. 동생 남편이 고씨였거든요. 제남도 빨치산으로 장기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름이 '희선'인데, 왜 '희선'이라고 지었냐고 물으니, 아빠 이름 윤희보에서 '희'를 따오고, 엄마 이름 박선애에서 '선'을 따와서 '희선'이라고 지었다는 거에요. 우리 딸 원래 이름은 '윤봉혁'이 었어요. 봉오리 봉(峰)에 붉을 혁(赫). '붉은 혁명의 봉오리가 되어라'는 뜻이었지??(웃음)

— 따님이 집안의 '혁명 전통'에 따라 열심히 운동을 했겠네요?

우리 부부는 여러 사정상 딸이 하나 뿐이에요. 더 낳을래야 낳을 수도 없는 조건이었지요. 우리 딸이 같이살면서 우리 자매를 먹여살리고 있어요. 고맙지요. 우리 딸도 대학다닐 때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건대에서 총여학생회장도 했고요. 학교만 갔다 오면 온몸에서 최루탄 냄새가 나더라고요.(웃음) 91년 강경대군 치사사건 때는 저도 우리 딸이랑 같이 데모에 참여하기도 했지요. 다행히 우리 딸은 잡혀간 적은 없어요. 우리 자매 모시고 사느라 우리 딸은 아직 결혼도 안했어요. 지금은 운동은 안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지요."

- 74년도에 잡혀가신 남편 윤희보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윤 선생님은 결국 89년도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때에 나오셨어요. 우리 딸이 대학1학년 때. 그렇게 89년부터 같이 살다가 2000년 6 · 15 선언 이후 비전향장기수 북송 때 북쪽으로 가셨어요. 가족들이 남쪽에 있지만, 자신의 신념대로 북쪽으로 가신 것이지요. 저도함께 갈까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딸과 헤어져야 했으니까… 저는 여기 남았어요. 그렇게 남편과다시 이별하게 됐어요. 통일되면 만나기로 했어요. 북송 후로 남편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금강산은 한번간 적이 있긴 하지만… 아직 건강히 잘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연세가 90이에요. 작년 6 · 15선언 5주년

행사 때 평양에 갈 준비를 다 해놨더니 비전향장기수라고 못 가게 해서 결국 못갔어요. 많이 아쉬웠지요."

— 그래도 남편과 이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데요. 따님의 경우도 그렇고요.

"아쉽거나 슬프긴 했지만, 크게 생각해야죠 곧 통일 돼서 만나면 되니까요… 남편은 청년학생들을 매우좋아했어요. 청년이 나라의 기둥이라고. 89년도에 출소해서도 열심히 통일운동을 하고 다니셨죠. 우리 딸은 아버지와 헤어질 때 울고 난리였지요… 그래도 당신께서 평생 지키신 신념과 사상대로 북쪽으로 가신 것이기에 딸아이도 가지말라고 할 수는 없었죠…"

— 어떻게 그 혹독한 전향공작도 거부하고, 평생 신 념을 지켜나가셨나요?

"아무래도 양심을 파는 일은 할 수가 없던 것이지요. 감옥에 있을 때 전향한 사람들이 계속 방송을 하는데 '남한이 좋다,이북은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 는 거에요.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남 앞에서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짓이었지요. 자기가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하기 위해 나섰는데…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 동생(박순애 선생님)이 많이 아프셔서 걱정이시 겠네요.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작년 초에 집에서 넘어져 이대 목동병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치료를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어 중앙병원으로 옮겨서 좀 수습이 됐지만, 그후로 허리를 거의 못쓰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집에 다시 왔는데 계속 누워있는 형편이에요. 저도 포로수용소에서 고문당한 휴유증이지금까지도 그래도 남아 있어요. 많이 아프지요. 얼마전 항문에서 피를 쏟아서 병원에 갔더니 '치질'이라고 하더군요. 암같은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포로수용소 휴유증으로 치질에 걸린 것이지요. 원래포로수용소에 있던 사람은 못 먹을 것을 많이 먹어 치질에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 지금 제일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요?

"남북문제 해결이지요, 어서 통일되어야합니다. 60년이 넘도록 이럴 수는 없는 거지요. 일제와 미제의 침략과 강점이 100여년이 되어가요. 지금도 이러고 있는 것은 민족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외세와 싸운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가까이일제와 미제와 싸우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생각한다면, 우리 민족의 투쟁을 멈출 수가 없지요.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더 잘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외세를 물리치고 남북이 통일하는 데로 나아가자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요? 참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분단의 현실을 반드시 타개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남북문제 해결에는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그런 점에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 양심수 후원회와 권오헌 선생님께도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양심수 후원회지가 꼬박 꼬박 오고 있어요. 참 고마 워요. 종종 안부 전화해주는 권오헌 선생님은 정말 고 마운 분이지요. 84년도 감옥에서 나온 후로 단 한 번 도 쉬지 않고 양심수·장기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지 난 번 권오헌 선생 칠순 때 우리 자매가 몸이 불편해서 못갔어요. 그게 참아쉽네요."

코리아포커스(www.coreafocus.com)는 진보-개혁, 민족-민중과 함께하는 매체를 표방하고 2005년 10월 3일 참간한 인터넷 뉴스이다.

감옥은 투쟁의 현장입니다

김성환 | 부산교 1102

권오헌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이곳은 봄 냄새가 완연하여 코를 벌렁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낙성대 선생님들의 건강과 평안하신을 기원합니다. 또한 후원회 일꾼들에게도 잘 지내시라고 인사 전합니다. 보내주신 172호 소식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권선생님에 관한 글을 읽고서 운동시간에 박태규동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항시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곳에 수감 중인 박태규,강상규동지와 같이 권선생님의 무탈하심과 문집과 사진집 출판을 짓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그리고 이승규동지의 서신을 읽었습니다만, 저는 그 동안 아무 생각없이 지문날인을 하였고, 이동지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조언을 해주십시오. 감옥은 투쟁의 현장입니다. 이동지가 지문날인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 배우며 항시 이동지와 같이 싸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권선생님 이번 소식지를 보면서 지난 소중한 역사사실을 잊고 지나 왔다는 자책감을 느겼습니다. 남민전과 통현당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관련서절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꼭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03년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여 구속되고 실형 1년6월을 다 살고도 집행유예 때문에 2년이상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박태규(부산교), 엄기준(대전교) 동지들의 석방을 민주노총과 같이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전에 민주노총 비대위위원장이었던 전재환동지에게 두 동지의 선방과 구속된 노동자 선방에 관심과 투쟁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최근의 민주노총 소식을 들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여튼 이번 3·1절에 두 동지가 선방이 안되더라도 민주노총이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권선생님 오늘 서신은 부탁과 요청이 많아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책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시 무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2006. 2. 16. 나무 부산교도소에서 김성환 올림

뜨겁고 헌신적인 사랑의 힘, 연대의 힘

문상현 | 청주교 884

민가협 가족들에게

권오헌 회장님과 민가협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 늦게 편지를 띄운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정성스레 보내주신 소식지,영치금,영치물만 넙죽 받고 감사인사 한 번 드리지 못했으니 아무래도 혼이 좀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으로 집시법을 위반해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수강중인 문상현 입니다.

모두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다는 신념과 동지애로 투쟁했지만

고립되고 제한된 이곳에서는 흩어진 낱알처럼 그 힘을 잃기 쉽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무엇을 하건 여럿이 함께 할 때 용기와 흥이 나니까요.

자칫 무력해지고 나약해질 수 있는 수감생활에서 민가협은 꼭 바늘과 실 같습니다.

흩어진 구슬들을 다시 꿰어주고 이어주어 빛을 내게 해주지요.

민가협이 있어 수감중인 우리 동지들은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민가협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끈질기고

뜨겁고 헌신적인 사랑의 힘, 연대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가협을 떠올릴 때 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끊임 없는 포기 없는 헌신을 배우자고,

그리고 그 소중한 보살핌과 연대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자고…

추운 겨울, 민가협 동지들의 응원이 있어 씩씩하고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민가협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입춘을 넘어 봉의 기운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동하는 봄의 에너지를 받고 싱그럽고 포근하고 희망찬 세상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투쟁!

동지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2006. 2. 12 문상현

10 .2006 | 03

그 누가 민중의 생존권으로 거래하라 허락했는가?

김환진 | 회원

→ 1 난 2월3일 공식 출범을 선언한 한미자유무역 협정 공식 협상을 앞두고 양국간 비공식 사전 협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미 정부는 한미FTA를 올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미국과 노무현정부는 이미 정식 협상체결을 뒤로는 그들끼리 기정 사실화 해놓고 추진하면서 국민의의사를 반영 하겠다는 등의 민중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를 자행하여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 땅의 농민들을 포함한 다수 민중들의 분노를 배가 시키고 있는 것이다.

농업부분은 물론 한국영화로 대표되는 문화영역 까지도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거래대상으로 삼으려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한국정부의 작금의 작태에 미국의 주구 노릇을 하는 자들을 제하고는 모든 민중들이 분노를 느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사사건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눈치를 보면서 국민적 합의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묻고싶지 않을수가 없다. 국민들이 미국에 맞서 당당하게 할 말은하고 민중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라고 뽑아놓은 정부가 아닌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냔 말이다.

이 땅의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우리농업이

과연 우리민족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는 절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도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 쉽게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우리농업은 우리민족 생존의 근간을 이뤄왔었고 앞으로도 그 어떤 침략적 야욕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가치이다. 이는 미국이 제 머리 속으로 그리고 있는 농업의 무기화를 통한 세계민중의 착취와 지배가 더욱더 노골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민족에게 더욱더 절실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지 다시한번 되 묻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미국의 주정부 노릇을 자청하고 나설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삶은 내팽겨친체로 말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통한 문화침략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그 나라 문화의 그 중의 한 영역이 발전과 진화를 통하여 문화산업으로 육성되어지고 정책적으로 장 려되어지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나타 난 보편적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문화영역을 통 하여 자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들의 자국문화에 대 한 애정을 고취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에 더불어 경 제적 부가가치 창출 또한 주요한 효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영역은 그것이 산업의 형태로 변형발 전 되었을 때부터는 상대적 보호의 개념이 도입되어 국가적,민족적 차원에서 지켜져야 한다. 거대자본에 의하여 잠식당하게 된다면 결국 자본의 논리에 의하 여 한 국가의 문화영역이 더 나아가 자국문화자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자본에 의하여 그 독립성과 독창성, 고유함을 잃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앞에 닥쳐온 한국영화의 현실이 바로 그러하다.

한국영화가 질적,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이제야 세계속에서 우리의 색을 말할 수 있는 문화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경제적효과 면에서도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 · 미 FTA를 통한 스크린쿼터 축소는 이를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헐값에 넘겨버리는 처사에 다름하지 않는 것이다.

서편제의 100만 관중 돌파에서 왕의 남자 1200만 관중 돌파까지 약 17년여의 세월이 흘러왔다. 이는 단순히 영화 관객수의 증가, 영화제작자들의 수익증가 차원의 문제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다. 이제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접하는 중요한 문화적 코드로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것이고, 그 만큼 우리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성장해 왔음을 또한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즈음에와서 우리문화, 우리영화의 자리를 미국패권주의, 미국영웅주의가 판치고있는 헐리우드영화의 거대자본논리에 내어주게 된다면 우리국민의 의식 속에 소리없이 자리잡아 갈 숭미의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여타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이다.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도 모두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다국적거대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내어주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이 땅의 무고한 민중들 뿐이다.

제 뱃속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는 미국의 종 노릇을 자청하는 자들에게야 그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겠는 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착취당해 죽어나가는 것은 우 리 민중들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한 · 미 FTA의 체결을 통한 농업개방, 문화개방, 공공부분의 개방은 절대로 용인 할 수 없고 반드시 민중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그 누가 이땅 민중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된다고 허락했단 말인가? 어찌 당신들 마음대로 민중의 생존권을 가지고 미국과 거래하려 드는가? 우리는 허락한 기억이 없다.

당장 한 · 미 FTA 협상을 중단하고 민족자주권 수 호에 힘을써라 그것만이 이제껏 당신들의 저질러온 잘못을 뉘우치고 죄값을 치룰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시한부 근로계약을 반대한다!

국회가 2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시켜가며 통과시켰고 현재 본회의에서는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싸고 당정과 노동계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그 반대에 서있는 노동계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기간제 사용 사유제안'에 대하여 이번 소식지를 통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는 희망세상 제 42호에 기고된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님의 인터뷰글을 참조 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이란?

이는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그 정해진 요건에 해당 할 경우에만사용 기간을 정하고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정해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함을 말합니다.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기간제 사유제한을 도입할 경우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실업난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라는 논리로이를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위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동시에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기간제 사유제한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상 기간의 정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의 가장 나쁜 점은 고용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순응 하게 만든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용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데 이때 계약의 갱신 여부는 오로지 사용자에 의해서만 선택되기 때문에 노동

자는 고용안정을 위협받게 되고,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데 스스로 충실해지기 어려워지며 고용 연장 여부에만 급급해질 소지가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노동자들을 "알아서 기는" 노동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제는 출산휴가나 산재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일 정 기간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자리를 비울 경우에 만 써야 합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써야 할 것을 기간을 정한 비정 규직으로 쓴다면 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 저임 금 등을 정당화하려는 기재로 사용한다고 밖에는 판 단하기 힘듭니다.

여당에서는 2년만 기간제로 고용하고 후에 정규직 화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 파견노동자 가 처음 생겨났을 때에도 2년 후 정규직화를 제안 했 었지만결국 거의 대부분의 파견노동자들이 2년이 되 기 하루 전날에 해고를 당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의 필요성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강 도를 높여 온당치 못한 근로계약관계의 폐단을 반복 하게 만듭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야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사유를 전제로 하여 최소화 하여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대다수가 근로계약서상에 정해 진 계약기간의 갱신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야 하고, 언제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도입되어야 할 것입 니다.

'사회양극화해소'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수구정당까지도 남한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언급하고 있는것이 '사회양극화 해소' 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안'을 놓고 정부·여당이 보여 주는 태도는 사용자측의 권익보호에만 치중되어 있 는 감이 느껴지며 상대적으로 고용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에는 무관심 한 듯합니다.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떠들어 왔던 '고통분 담' 이란 것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고통이 분담이 되었던가요? 결국 고통은서민 들, 민중들의 몫으로 전가 되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법인'의 강행처리를 지켜 보면서도 과연 집권당과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하는 실망감과 회의가 느껴집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더 이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역할을 자청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고용관계를 정립하고 어느 한 쪽의 피해로 다른 쪽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상생의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입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역사의 주인인 노동자가 참주인 되는 그 날 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박정희의 망령을 진실규명으로 걷어버리자!

-2월, 관악산을 오르다

김확진 | 신입간사



______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 라 부터 올리는 것이 순서인 듯 하여, 이렇게 지면 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2월부터 「민가협 양심수후 원회」에서 상근간사로 일하게된 김 · 환 · 진 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2006년 2월 산행 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이 시작된지 벌써 두 달 여가 되어갈 즈음 인 2월 26일, 4월혁명회의 세분 선생님들을 모시고 권오헌 회장님 이하 후원회원 14명이 낙성대에서 출 발하여 관악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행인지라설레이는 마음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오르 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산행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권오헌 회장님과 4월혁명 회 선생님들의 청년을 능가하는 산행속도와 체력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정신없이 산중턱에 다다랐을때 잠 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이 준비해오신 방 울토마토와 막걸리 한잔으로 목을 축이고 다시 더 높 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다다른 정상 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여 점 심식사를 함께 하였고, 식사중 선생님들께서는 최근 의 정세에 대한 담화를 나누셨는데, 그 내용은 WTO 양심수후원회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처음 가보는 체제에서 전세계농민들이 연대투쟁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경 제체제는 달러화가 그 가치를 조금씩 잃어가며 유로화에 제1통화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경제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여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과 같이 전세계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하는 말씀, 그렇게도 타국의 인권사항에 대해서는 감놔라 대추놔라 말이많은 미국이 실상은 자국의 역사 자체가 피로 물든역사였고,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서 세운 나라라는 것 등에 대하여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봄바람이 옷깃을 헤집고 들어와 쌀쌀한 꽃샘 추위를 느끼게 하는 날씨에 산을 오르며흘렸던 땀이 식어 약간의 한기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지만 김호현 운영위원이 준비해오신 홍주와 그 맛이일품이었던 양념장, 그리고 신현익 회원이 준비해주신 족발 등이 관악산이란 상 위에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상다리 부러지도록 푸짐하게 차려져, 맛있는산상의 식사를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한 후 산을 내려와사당 동 근처에 자리를 잡고 진행된 시사강연에서는 4월 혁명회의 회원이신 곽태영(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서 선생님들과 산행에 참가한 회원들간에 간단 한 자기소개를 곁들인 인사가 차례대로 오갔고, 이어 서 곽태영 선생님의 시사강연이 진행되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에 주를 이루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수구세력들에 대한 대응책,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박정희 유령의 잔향을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서 깨끗이 걷어내자'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연과 토론이 오가는 동안 내내 보·혁 대립구도속에서 치러질 5·13지방선거에서 반통일,수구세력들이 지방권력을 더 나아가 중앙권력까지를 차지하게 된다면 결국 이 나라의 운명에는 발전이 아닌 되려 30년의 후퇴가 있을 것이라는 긴장감과 절박함이 좌중에 흐르고 있었고, 그러한상황이 닥치도록 뒷짐지고 앉아 있어서는 절대 아니될 것이며, "박정희 향수"로 대표되어 대중을 속이고 자신들을 거짓포장해온 반통일, 수구집단의 실체를 올바른 역사적 진실규명과 평가를 통하여 이 시대 안에서 종식시키는 것이 진보진영에서 취해야 할 방법 중 중요한 한 부분일 것이라는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정부, 민간을 막론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추진되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은 바람이 쌀쌀한 날씨였지만 선생님들과 회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첫 산행이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의 첫 산행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산행에는 보다 많은 회원들을 만나뵐 수 있 기를 바랍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21차 정기총회

■시 간: 2006년 3월 25일(토)오후 3시

■장 소: 정동 프린치스코회관 2층 강당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8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시 간: 2006년 4월 29일(토)오후 3시

■장 소: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2006년 4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일 시: 4월 11일(화) 오후 6시

■장 소: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회문 우체국6층**)

■작 품 명: 민족과 운명 제52부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편 제5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1년제작, 86분상영)

■줄 거리: 애국과 반역은 곧 혁명적 신념을 지키는가에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 영화이다.(마지막회)

- 경심은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되고 시어머니는 경심이 변절자의 자식이라 당시하고 있다고 마셨다.

더 이상은 같이 살수 없다고 말한다.

※ 문의: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3월 산행-북한산을 오릅니다

몸을 웅크리게 만들었던 차갑던 겨울도, 꽃샘추위도 다 물러가고 봄내음이 가득할 3월말의 산행에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좋은 말씀도 많이 듣구요 준비해온 도시락도 맛있게 나누는 즐거운 산행 함께하시지요.

■가 는 곳: 북한산 ■일 시: 3월 26일 (일) 오전 10시 ■모이는장소: 지하철3호선연신내역 ■준 비 물: 간단한도시락과 회비 3000원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오헌 선생님 출판기념회, 고희연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감시인사

김호현 | 회원

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있듯이 3월 중순임에도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월 4일에 있었던 양심수후원회 회장님이신 '권오헌 선생 고희연 및 출판기념회'를 회원 여러분의 분에 넘친 정성에 지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잘 마치었습니다. 축하 손님 500여 분이 함께하신 가운데 출판기념회와 고희연이 흥겨운 현악 4중주의 공연에 맞춰 열렸습니다.

1부 출판기념회는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사회로 박석률 공동준비위원장의 오신 분 소개와 인사말씀, 박근직 회원의 '권오헌 선생 걸어오신 길'소개, 김호현 준비위원장의 고희기념 문집의(글 모음집 "인권을 다지며 자주 통일의 길로", 사진집 "살아온 발자취가 역사가 되어") 발간사가 있었으며 이현근 · 김길자 회원의 문집헌정 순서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어 남민전 동지이며 문학 평론가인 임헌영 역사 문제연구소장의 서평이 있었고, 민족시인 이기형 선 생님과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의 축사가 있 은 다음 '449 프로젝트'의 기타, 해금 축하 연주가 있 었고 저자 권오헌 선생님의 감사 인사말씀과 기념촬 영으로 1부 행사를 마치었습니다.

2부 고희연은 1층 연회석에서 양심수후원회모성 룡 운영위원의 사회로 친족, 남민전 동지, 민가협, 유가협, 양심수 후원회, 옴시롱 감시롱 및 제사회단체 등의 현수 시간에 이어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 양심수 후원회 이기욱 부회장, 남민전 권영근 동지, 일본에서 오신 '한국 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연합의 와다나베대표님과 '남민전 구원회' 히라노 료코님의 축하말씀이 있었으며 가족대표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맹제영 신부님의 감사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 여흥시간에는 고성화 선생님의 축배 제의에 이어 김애숙 회원이 고수 박경환 님의 북장단에 맞춰 판소리 '천자풀이' 공연을 펼쳤고 노래극단 '희망새'의 흥겨운 공연 및 한총련 학부모인 박환양 님의 대금 연주, 남민전 최광운 동지, 민가협 박영옥 어머님 등 많은 분들의 열창이 이어졌으며 이 날을 위해 준비한 양심수후원회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공연은 흥을 한 껏 돋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날 모임에는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고성화 선생 님을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과 통일원로 사 회각계 대표인사 및 천정배 법무부장관, 천영세, 이영 순 의원 등 정계인사, 민가협 · 유가협 어르신들, 남민 전 동지들, 청년 · 학생들, 양심수후원회, 옴시롱감시 롱 회원등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울러 천영세, 김태홍, 원혜영, 장영달 의원과 함세 웅 민주화기념사업회이사장, 조용환 변호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음시롱감시롱, 이석기 님 등 이 축하화환을 보내주셨고 김근태, 천영세 의원과 이 정이, 장두석 선생님은 축하 전문을 보내주시기도 하 셨습니다.

이렇듯 각계 각층에서 물심 양면의 지원이 있었기에 2개월 여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행사를 준비하고 또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기간과 행사시까지 많은 애를 써 주신 준비팀의 여러분에게도 큰 인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 3월

'권오헌 선생 고희연 및 출판기념회' 준비위원장 김 호 현 올림

마음의 편지

조순덕 | 민가협상임의장

기도 하는 하얀 묵주 기품있는 성모상 아래서 물빛 그리움과 따스한 햇살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묻어있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순백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음에는 진한 희망! 소망! 사랑! 자연은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를 영글게 하고...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은 당신마음, 우리마음 사랑의 마음 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과 이별의 교차로에서 우리들의 우정 차곡차곡 쌓여 갑니다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 편히 단 한 사람일지라도… 편안한 정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안에 당신, 당신 안에 우리 가슴 넉넉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간곡한 사랑의 마음을…

사람을 사랑하는 일 행복한 일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 멀고도 먼 길입니다. 한 그루의 사랑나무를 당신과 우리의 가슴에 심으며 도란도란 황금빛 이야기 나누며 우정의 꿈나래 엮어 가는 당신과 우리들

당신은 진정 아름다운 사람! 당신은 진정 따뜻한 사람!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

우리 모두 7천만 겨레로 사랑 나눕시다 통일되는 세상에서 한라산으로, 백두산으로… 통일잔치를 열 때 북녘사람 남녘사람 모아 모아서 사랑을 나눕시다

당신이 살아오신 70년 '삶' 외롭고고독 했을것이고 그러나 뿌듯하고 행복하기도 했을때에 더 많은 보람을 느끼며 사시는 당신! 바라보는 우리도 행복합니다

권오현 회장님의 고희연과 출판기념회에 즈음하여 민가협 상임의 장님이신 조순덕 어머니께서 축하의 시 한 편을 써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지로서 벗으로서 고난의 시절을 헤치고 여기까지 달 려오신 선생님과 어머니들의 우정과 믿음에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이 시를 소식지에 올립니다



◀ 오마이뉴스, 2006년 2월 1일,김상돈



한겨레신문, 2006년 2월 13일, 장봉군▶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FAX: 02-888-4470 ■E-mail: yangsimsu@hanmail.net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이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격	5				
연락처				거래은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민	<u>ŀ</u> 원(), 30만원(), 기타()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 2006년 3월 9일 현재, 민가협 조사 집계 ▶동자, 농민, 재야등총 50명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고태환	노동자	건설연맹(경기서부)	울산플랜트노조집회 관련	2006-03-02	집시,폭력			서울구 83	미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피업	2005-07-05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7/07	부산구 6060	기결
0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피업,크레인시위	2005-05-17	업방,폭력	1년6월	2006/10	진주교 6	기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피업	2005-04-08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7/11	대구교 86	기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피업	2005-12-29	업방,폭력	10월	상고중	부산교 874	미결
전재환	노동자	금속연맹	12·1비정규직법안 반대집회	2006-02-25	집시,특공			영등포구 3434	미결
서종석	노동자	금속연맹(대성MPC)	정리해고 반대투쟁	2006-03-01	폭력			천안구 5570	미결
조성철	노동자	금속연맹(대성MPC)	정리해고 반대투쟁	2006-03-01	폭력			천안구 5552	미결
윤태수	노동자	금융노조(조흥은행)	구조조정반대	2005-09-08	폭력			서울구 18	미결
박종환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파업	2006-02-02	특공치상			수원구 308	미결
김용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2005-06-13	집시,특공	1년6월		대전교1313	기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2005-02-22	명예훼손정통법	3년+2월+6월	파기환송심	부산교 1102	미결
구재보	노동자	세원테크노조	0 현중열사관련	2003-12-22	폭력,업방	1년6월+2년6월	2006/04	대전교 1959	기결
이상선	노동자	전국시설관리노조	비정규직입법 투쟁관련	2005-12-06	광			영등포구 3439	미결
변외성	노동자	전해투	복직투쟁(사회보험 노조)	2006-02-20	업방 ,폭 력			영등포구 3458	미결
엄기준	노동자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2003-12-10	집시,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신재교	노동자	히이닉스 하청노조	노조활동 관련	2005-10-21	집시,폭력			청주교 726	미결
박찬경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철폐 투쟁관련	2006-02-15	업방,공방	6월	상고중	원 산구 33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대량해고빈대 농성	2005-11-05	특공치상	1년6월	항소중	순천교 278	미결
박태규	노동자	회섬연맹	노동자대회(11.9)	2003-11-12	집시,폭력	1년6월+1년6월	2006/11	부산교 1406	기결
김종교	恕	전농(순창)	11.15농민대회	2005-11-15	특공,폭 력,집시			영등포구 3429	미결
빅안영	恕	전농(해남)	11.15농민대회	2005-11-15	특공 회염병,집시	1년6월	항소중	영등포구 3495	미결
최재영	일반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3-06	병역법			부산 사하경찰서	미결
전욱용	일반	개인	북한방문	2004-11-18	국보	3년6월	2007/05	광주교 5009	기결
이승규	재아	다산인권센터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7-28	병역법	1년6월	2007/01	김천교 569	기결
김영진	재야	민주노동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1-19	병역법			영등포구 2524	미결
문상현	재야	시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7-19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주교 844	기결
윤치고	재아	시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처우항의	2004-06-20	특가법	1년+6월	추기기소	춘천교 451	미결
최진	재야	작은 누리	앙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6-28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송제2교 1329	기결
강태운	재야	전 민주노동당 고문	회합통신 시건	2003-08-15	뀯	6년	2007/08	대구교 90	기결
임재성	재야	전쟁없는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1-28	병역법	1년6월	2006/07	충주구 865	기결
조영귀	재야	전철연(수원망포)	강제철거빈대	2005-02-17	집시,폭력	1년6월		순천교 1230	기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20	특공,공방	1년6월	2006/10	청주여 15	기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계결
성낙경	제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빈대	2005-05-03	회염병치사	6년	항소중	서울구61	미결
강재희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5년	항소중	인양교1076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5년	항소중	서울구62	미결
유경렬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5년	항소중	서울구25	미결
빙영철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회염병	5년	항소중	인양교3975	미결
이영자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3년	항소중	영등포구 4170	미결
이재남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5년	항소중	인양교2082	미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2년6월	항소중	서울구20	미결
정창윤	재아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4년	항소중	인양교1588	미결
재광호	제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4년6월	항소중	인양교3975	미결
김학명	재아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4년6월	항소중	서 울 구10	미결
오정록	제야	평화네트워크	앙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8	서울구4172	기결
유호근	재야	희망동네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2-17	병역법	1년6월	2006/08	의정부교 1550	기결
고동주	학생	기톨릭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1-24	병역법			영등포구 2305	미결
양경수	학생	외국어대(왕산)	한총련불탈퇴(10기)	2006-02-10	권, 폭 력			수원구310	미결
김민석	학생	중앙대	한총련불탈퇴(12기),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2006-02-24	국보,집시			의정부교 805	미결
조정의민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5-17	병역법	1년6월	2006/11	김천교24	기결



♣ 이런 일이 있었어요

01-----

★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종인 의원실 주최로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한미관계 긴급정책토론회'를 열다. 임종인, 최재천(열린우리당, 노회찬(민주노동당)의원 등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고는 양립할 수 없다며 국민합의 없는 합의를 정면 부정하다. 특히 최재천 의원은 국가안보회의(NSC)상임위 회의자료 일부를 공개하며 미국의 강요에 굴복한 외교당국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하다.

02-----

- ★ 서울 코엑스 본관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한─미FTA 공청회가 열렸으나 농민, 문화예술인 등 참가자들은 공청회가 협상개시선언을 하기 전에 치루어지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항의하였고 반발이 거세지자 주최 측에 의해 이후 일정 발표없이 중단됨. 공청회에 참가한 농민단체 회원을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은 '국민적 합의과정 없는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 □ 급성폐렴 등으로 전북대 병원에 입원치료하셨던 오기태(장재필) 선생님이 오늘 70여일만에 퇴원하시어 전북 진안군 동부병원으로 옮겨 요양하시기로 하다. 권오헌 대표, 박봉현, 윤성남 선생님과 일꾼쉼터 김진왕 실장 등과 함께 퇴원하시는 선생님 마중하고 박봉현 선생님과 김진왕 실장 등 동부병원까지 다녀오시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입원비 등으로 500,000원 전해드렸음.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는 익산에 계신 윤성남 선생님과 함께 삼례읍에 계신 출소 장기구금 양심수 이일설 선생님과 익산에 계
- 민가협 603회 목요집회

여는말 조순덕 상임의장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 구속사태 등 현황 - 김영진(양심에따른병 역거부자 학생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설날을 보내며 양심수 석방 촉구 발언 - 임미자 회원

시는 맹기남 선생님을 찾아 뵙고 인사드렸음.

03-----

-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들이 접촉을 갖고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2월 말∼3월 초에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이틀간 개최하기로 회담일정을합의했다고 언론이 전하다. 남북군사당국자들은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하다. 남측에서는 문성묵 대령을 수석대표로하는 3명의 대표단이, 북측에서는 박기웅 상좌(단장대리) 등 3명의 대표가 함께하다.
- ☎ 서울중앙형사지법 526호 법정에서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의 심

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만경대 필화 사건'에 이어 '6,25는 북한지 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인터넷 매체 기고로 인해 국가보 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가 검찰측의 기소요지와 강교수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이어진 검찰측 심문에서 6·25 전쟁의 성격과 미국 개입의 영향, 남북의 정통성 논란, 서해 교전의 성격, '반미'단체 활동경력 등에 대해서 강 교수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객관적 실증을 갖고 반박하다

-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현지시간 2일)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 교섭본부장고 로버트 포트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의회 상하 의원들이 참가한 기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협상출범을 공식선언하다.
- ☼ 2002년 경기대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이며 서총련 조국통일위 원장으로 수배 5년차인 박공기(99학번)학생이 염창동 한나라다에 기습진입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강제연행되다. 박공기 학생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범죄 정당, 매국정당, 한나라당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당사마당에 뿌리고 플랑카드를 펼쳐 시위하다. 또한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정당 부정부패 비리사학 옹호하고 색깔공세하는 한나라당해체'를 주장하다.

04-----

- 연세대 대강당에서 제14기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열리다. 본 행사에 앞서 '한총련 합법화의 밤'에서는 한총련 문예단의 문예공연이 있었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연대사, 노래패 '우리나라' 의 축하공연, 장경욱 민변 변호사와 박재민 2000년 서총련 의장의 정치연설, 14기 한총련 건설준비위원장 장송회 전남대 총학생회장의 결의발언이 있었음. 이어 12시가 지나 시작된 대의원대히에서는 단독입후보한 장송회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14기 한총련 의장에 당선되고 조국통일위원장에는 황유석 광운대 총학생회장이, 학원 자주화추진위원장에는 정재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이 당선되다. 이어 총노선 토론을 거쳐 채택한 결성선언문에서는 '미국의 영구분열책동, 신보수대연합 구축 및 친미정권수립 책동을 걸정적으로 파탄내개 위한 3대 애국운동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하다.
- ★ 3일 정부가 발표한 스크린쿼터 축소방침과 한미자유무역협정 (FTA)협상재시 선언에 반대해 영화인들이 집단농성에 이어 이날 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안성기 위원장이 첫 1인 시위에 나서다.

05-----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문상봉, 안학섭, 김영식선생님, 민가협 어머니들을 모시고 새해인사를 드리고 떡국과 음식을 나누다. 서산의 박근직, 김봉례회원이 직접 농사를 지은 쌀로 뽑아온 떡국을 끊여 참가한 50여명의 대식구가 맛있는 점심을 먹었고 김호현회원이 준비해온 술과 오감시롱 회원들이 마련한 안주로 흥을 돋

2006년 2월

구웠고 어머니들과 회원들이 노래를 부르며 만남의 집이 들썩임. 식사가 끝나고 이른바 '만경대 방명록'과 '통일내전론' 등 필화사 건으로 입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도 받 고있는 강정구 교수의 '냉전허물기'특강이 있었음.(후원회소식 172호 보신)

耐화동 대학로에서 '한총련 14기 출범선언과 한나라당해체 결의 대회'를 열다. 의장 옹립과 문예공연 등이 있었고 김지태 팽성대 책위원장의 연대발언 등이 있었고 종각까지 행진하다.

06-----

- ☞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통사, 범민련 남측본부 등 사회단체들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 고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합의에 따른 아태침략군화 전면허용 에 대한 내정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다.
- ◎ 외교통상부는 정부수립후 1974년 까지 191권 17000쪽 분량의 기 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하다. 이번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이북의 만국우편연합(UPU) 아시아 아프 리카 법률자문회의(AALCO)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재외공 관을 동원, 총력외교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다.

07-----

- ◎ 미 대사관 인근 한국통신 앞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한국 기독교청년협의회 등 8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실현과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청년연대('평택청년연대) 소속 회원이 평 택 미군기지 확장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청년 대표자 선언 기자 회견을 열다. 선언에는 청년단체 대표자 218인이 동참했으며 기 자회견을 마치고 평택 팽성읍 대추초등학교에 도착, 미군기지 확 장 예정 지역과 대추리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대추초등학교 인근 공터에 '대추리 평화촌' 제 4호 텐트를 마련하다.
-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는 주민 의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토지 강제수용방침에 맞서 평택 주민 주민등록증 반납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 후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기 위해 시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시청직원들과 몸싸움이 빚어졌으며, 끝내 반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시청 현관에서 불태워버리다. 폭설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팽성읍 마을 주민들의 주민등록증은 대책위에서 차후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뒤, 보관하고 있다가 재처리 하겠다고 밝히다.
- 통일연대 회의실에서 5기 통일연대 상임대표자회의 및 6기 총회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다. 6·15민족공동위 남측준비위 보고 와 소속단체 보고에 이어 6기 통일연대 총회 일정 수정에 관한 건(3월 8일)과 5기 통일연대 사업평가. 6기 통일연대 사업계획안.

평택 제3차 평화대행진에 대한 입장 정리건 등 논의 통과시키다.

남산 영화감독협회 시사실에서 전국농민연대 등 62개 시민사회 단체는 '우리영화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영 화지키기 한미FTA반대 범국민 대책위 구성을 발표하다.

08-----

-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의원과 농민단체, 농림부 직원 등은 농업회생을 위한 3자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를 벌이다. 전국농민연대 정기환 집행위원장이 발제하고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 민주당 이정일 의원, 농림부 이명수 차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 등이 토론하다.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 주최로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대회'를 열다. 안성기, 김지영, 신효철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영화인과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양기환 대변인 사회로 한국독립영화협회 황철민 이사장, 한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 변호사 등이 결의 발언과 영화인들의 투쟁결의문 낭독이 있은 다음,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다.
- 중국대학교 이사회(이사장 현해 스님)가 '6.25는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사회학과)의 직위해제를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하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10시 10분 경 학생대책위가 본관 앞에서 강정구 교수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건너편에서 '직위해제 결정을 촉구' 하는 선전전을 진행하던 자유넷,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수구단체 회원 10여 명이기자회견장을 침범해 학생대책위의 현수막을 빼앗고 피켓을 부수며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학생들과 심한몸싸움을 벌여 기자회견을 방해하다. 강정구 교수는 대법원 확정도 있기 전 기소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학교당국이 이같은 결정을한데에 대해 직위해제처분 취소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입장을 밝히다.

N9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04회 목요집회를 열다.
 여는말 권오헌 공동의장─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재판 놀음과
 - 어른날 현오인 공동의상-강성구 교수 국가보인법 새판 돌음과 직위해제 결정규탄, 강태운 민주노동당 고문 등 국가보인법 관련 양심수 석방 등 촉구하다.
- ★색연합 등 8개 환경단체 등은 한미연합 토지 관리계획(LPP)에 따라 2008년까지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 성명을 내고 ①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결과와 한미협상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 ②오염 부담자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을 정화할 것 ③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기 준과 정화책임 정화절차 등 세부규정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 하다.

10 -----

- 🚵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남 정부의 SPI훈련 참가와 관련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훈련에 남조선이 참가하기로 한 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며 노골적 인 도발'이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대변인 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전파안보발기(SPI)훈련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외 세와 함께 동족에게 칼을 빼든 또하나의 용납못할 반민족적 범죄 행위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고 하다.
- 🚵 '후원회 소식' 172호 발송작업,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 단국대 법 사회학회회원 4명, 양계숙, 김환진, 김은 함께하다.

- 🚵 서울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5층 대강당에서 전국농민회총연 맹 대의원대회가 열려 2006년도를 이끌어갈 11기를 출범을 선언 하다. 대의원대회에서 10기에 이어 11기 전농 의장, 부의장에 각 각 문경식 의장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연임하게 됐으며, 장동화 강원도연맹의장이 부의장으로 새로 선출됐다. 문경식 의 장이 추천한 전기환 사무총장, 최재관 정책위원장이 11기 임원으 로 인준받다. 한편 11기 출범 결의문에서는 •농민운동의 혁신과 발전전망 선포 • 한미FTA저지와 수입쌀 시판 추방 • WTO. DDA,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농민 대중투쟁 강화 •5·31 지 방선거 승리와 단일연합전선체 건설 • 농업의 근본적 회생대책 수립으로 농민의 대안세력화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와 6 · 15 민족 공동위 농민위원회 강화 등을 채택하다. 또한 별도의 한미 FTA저지 특별결의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은 식량 주권과 문화 주권을 수호하는 것임과 동시에 조국통일의 대사변 기를 맞이하는 성스러운 자주통일투쟁이라고 선언하다.
- ☎ 지난 6일부터 5일간 진행된 민주노동당 대표결선투표 결과, 문성 현 후보가 총투표자 3만 1천 269명 중 1만 6547표(53.62%)를 얻어 2년 임기의 민주노동당 대표 최고위원에 당선되다.

12 -----🚵 평택 팽성읍 대추초등학교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강제토지수용 저지. 한반도 평 화실현을 위한 2 · 12 평화대행진"이 3.000여명의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되다.

본 행사에 앞서 향린교회와 희년마을교회 등 12개 단체 신도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대추초등학교 비닐하우스에서 최의팔 목사 의 인도로 '평택 미군지기 확장저지를 위한 기독인 평화예배'가 있었고 이 날 모금한 기금을 대책위에 전달하기도 하다. 풍년을 기원하는 사전마당 행사로 본행사장인 대추초등학교와 인 근 황새울 들녘 등지에서 미군 비행기가 오고가는 하늘 위에 연 날리기 행사가 벌어졌고 행위예술가 이삼현 씨가 풍년 굿을 벌였 으며, 도두2리 이상렬 이장이 올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천 지신명께 고하는 축문을 읊고 마을 주민 30여 명이 무대에 올라 농기구를 무대에 꽂고 큰 절을 올리는 고사를 지내다. 민점기 '광양만주한미군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일본의 '일 평지주관동그룹'도미야마 마사히로 회원이 발언에 나서 평택 미 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다. 본대회 에서는 평택범대위 문정현 상임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문성현 민 주노동당 대표의 연대사 등이 있었고 김지태 팽성대책위 위원장 이 '2 · 12평화대행진 선포문'을 낭독하다. 본대회를 마치고 참가 자들은 캠프 험프리 기지 옆길을 따라 들녘을 약 1Km 정도 황 새울 들녘으로 행진을 벌이고 캠프 험프리 철망에서 50여m 떨 어진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도착했으며 달집을 태우는 것을 시작 으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시작하다. 참가자들은 달집불을 중 심으로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연을 띄워 험프리 미군기지로 날려보내는 것으로 평화대행진을 마치다.

13 -----

★ 흥사단 강당에서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주최, 한국기자협 회 등 7개 언론단체 후원으로 민족일보 창간 45주년 기념행사 및 특별강연회가 열리다. 행사는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조 용수와 민족일보 편) 영상상영에 이어 제1부는 조용준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 대표위원장의 인사말, 전무배 공동위원장의 민 족일보 연혁소개.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박중기 후모연대 의장의 기념사 이기형 시인의 축시 '신나는 세상'의 노래공연, 마지막으로 김자동 진상규명위원장의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 촉구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제2부 특별강연회는 고려대 언론학부 김민환 교수의 '민족일보의 남북문제논설내용 분석'을 주제로 진행되다.

14 -----

- ▲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위폐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53회 기자포럼'이 열리다. 이 날 발제를 한 '미디어 오늘'고승우 논설실장은 '2003년 미 재무부 보고서'를 인용 '북한 위폐문제 언급조차 없음'을 들며 '위폐의 실재 유통은 부풀려진 것으로 확 인됐다'고 하다. 또한 '북한이 실제로 위폐를 제조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내 최고의 위폐 전문가(서태석(62) 외환은행 부장) 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초정밀 위폐인 슈퍼노트의 경우 북한 이 만들지 못한다고 본다고 밝히다.
- अ화문 우체국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양심수후원회가 주관하 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영화보기', '민족과 운명 제49

2006년 2월

부'(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편 제2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1년 제작, 90분상영)

-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예정지 인 대추리 등 3곳 26만여 평방미터에 대해 사전 발굴조사방침을 지난달 20일에 결정했다고 문화재청 발표를 인용보도하다. 보도 에 따르면 대추리, 금각리, 신강동구장터 등 유물산포지로 고려시 대 이후 최정색 경질토기와 조선시대 이후의 토기, 자기 편 등 유물이 확인됐고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시굴조사를 벌여 유적의 보존 여부 및 성격을 확인해야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다. 한편 이날 국방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문화재를 파괴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할 것'을 촉 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곧이어 미8군기지 앞에서도 환경단체 문화연대 등이 문화재 보존 촉구기자회견을 열었음.
-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는 중앙정보부의 고문 가혹행위로 숨진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같은 거대국가조직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다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평통사, 범남본, 민가협, 평택-대책위등 여러단체 공동으로 '제77차 반미연대집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미대사관에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주한미군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강요 •주한미군 영구주둔 및한반도 전역에 대한 패권장악을 노리는 '미래한미동맹비전' 합의기도 •주한미군의 해외침략전초기지 및 영구 주둔 기지 만들려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15 -----

- ➡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이 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폐가 북의 국영기업이나 기타 국영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이 슈퍼노트(위폐)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폐기했다는 물적증거를 제지하는 것이다'라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위폐제조를 단정하는 망발을 하다.
- 미대사관 옆 KT건물 앞에서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영화인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20여명은 'FTA저 지범대위 준비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온국민의 힘으로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하다.
- ☆ 남북 적십자사는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오는 3월 20-25일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생사

확인의뢰서(남북 각각 200명)를 교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6・15남측위 결성 1주년 기념식이 열리다. 백낙청 남측위 위원장의 인사말, 김원기 국회의장의 격려말, 이재정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이봉조 통일부차관 등의 축사와 6・15북측위와 해외측의 축전 소개, 축하공연, 이석태 6・15공동위 남측조직발전특위장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다.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제 4차 공동대표자 회의에서 6・15민족공동위의 규약을 골자로 하는 자체 규약을 채택했으며, 공동대표와 운영위원 교체와 추가선출이 있었고 사업계획안을 통과시키다.

16

- ▲ 탑골공원에서 민가협 605회 목요집회를 열다.
 - 여는말 임기란 전상임의장, 전국비정규노동대책위 일꾼의 비정규 직노동자 차별사례와 비정규노동관련법 민주적 제정 촉구발언, 권오헌 공동의장의 스크린쿼터 축소와 한미FTA협상개시 규탄발 언, 문화연대 일꾼의 스크린쿼터 관련발언 등이 있었음.
-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합의, 용산기 지 이전협상 등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 관련 대미협상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내다.

17

- 유엔 인권위원회가 임명한 인권특별보고관 5명은 지난 18일 동안 벌인 관타나모 포로수용소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른 성명을 내고 이 수용소의 즉각 폐쇄할 것과 해당 포로들을 적법한 사법절차에 회부하거나 석방할 것을 촉구하다. 한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했고 유럽의회도 이수용소의 인권유린은 미국이 전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용시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 ▲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8개 주요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준)'은 '한미 FTA 저지를위한 농민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종로1가 삼성타워까지 행진하다. 이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린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주최하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다. '쌀과 영화'라는 이름의 촛불문화제는 영화배우 공형진 사회로 농민 '황성댁' 1인극에 이어 안성기 영화인 대책위원장과 문경식 전농의장의 쌀과 스크린쿼터 사수 등 한미 FTA협상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고 양동근 씨의 힙합공연, 인기댄스그룹 멤버인 이민우씨 공연, 영화 '왕의남자'로 한미FTA협상을 풍자한 대진대 영화학과 학생들 공연, 천영세 민주노동당의원의 결의발언, 정태춘 박은옥의 노래공연, 마지막으로 정지영 영화인대책위원장은 쌀은

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몸이고 영화는 마음이라며 쌀과 영화를 지키자고 호소하다.

18 -

●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회관에서 역사문제연구소 창립20주년 기념 식이 열리다.

20-----

- ☞ 영등포 전교조 회의실 3층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006년 제1차 주관단체 대표자회의가 열리다. 권오헌 상임공동 대표 사회로 성원보고, 안건채택에 이어 계승연대 2005년 사업 보고, 감사보고 및 결산에 대한 토의와 승인, 계승연대 회칙 개정 안 승인, 계승연대 200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토의와 채 택이 있었고 이어 계승연대 조직발전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련 토론이 있었음.
- 6·15공동선언 실천 평양방문단 85명이 고려민항 전세기로 평양으로 떠나다. 방문단은 방북일정 중 대표단 협의와 전원이 참가하는 연환모임 등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묘항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을 돌아보고 24일 돌아온다고 하다. 방문단은 열린우리당 28명, 민주당 23명, 민주노동당 25명이며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단장을 맡았음.
- ➡ 정동 배재빌딩에서 남측교수 108명이 조직한 '남북교육협력추진 위원회 창립식'과 기념포럼을 갖다. 공동추진위원장에는 장임원 (중앙대), 김세균(서울대), 고홍석(전북대), 김상일(한신대), 안병욱 (가톨릭대), 조은(동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고문에는 김민하 민주 평통 수석부의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등을 위촉했고 기념포럼 에서는 김광운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자의 발제와 전은주 겨레하나 정책실장, 박용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의 남북교육협력 방안 등을 토론하다.

21-----

- ★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준)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 FTA협상중단과 농업회생을 위한 '2006 전국동시투쟁선포기자 회견'을 열다. 한농연 서정의 회장, 전농 문경식 의장, 가톨릭농 민회 정재돈 회장 등 결의발언과 한여농 허기옥 회장의 기자회견 문 낭독이 있었음.
- 한국언론재단은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미 FTA추진과 전망'이란 주제로 협상을 추진해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초 청해 정부관계부처 공무원, 언론사 논설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협상 추진과 전망에 대한 포럼을 열다.

22

★ 여의도 국회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한나라당 이방호의 얼빠진 망언규탄 및 대국민사과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지난 20일 이방

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노무현 정부 국정파탄 보고대회에서 세계 모든 국민들은 모국과 미국의 두 나라를 갖고 있다라는 사대매국적 망언을 한 바 있었음.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 규탄발언과 한상렬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당독이 있었음.

- 민주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최종결선투표에서 기호 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가 당선되다. 여성 할당 부위원장에는 김영옥, 김지 희, 최은민 후보가 당선되었고 일반 부위원장에는 이태영, 윤영 규. 허영구 후보가 당선되다.
- ◎ 〈한국일보〉는 1982년 12월 20일~1988년 12월 19일에 태어난 전국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선에 처음 참가하는 새 '대선세대' 47.7%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 북한의 핵 시설을 폭격할 경우 북 한편에 서서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보도하다. 미국 편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은 11.6%에 그치다.
- 급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이틀째 북측은 6⋅15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대면상봉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실시하고 6⋅15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려 2차례 추가 상봉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남측은 화상상봉을 매월하고 매주 서신과 선물을 판문점을 통해 교환하자고 제안했으며 납북자, 국고포로 생사확인 등 제안을 했다고 보도되다.

23-----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 고 이옥순 열사 묘소에서 고 이옥순 열사 5주기 추모제가 열리다. 원풍모방 노동동지였던 박순희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대표의 약력소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과 이옥순 열사를 열심히 간병했던 설현정 씨의 추모사, 류은숙 씨의 추모시 낭독, 반미여성회원들의 추모노래가 있었음. 이어 권낙기 선생의 가족인사, 각계대표와 참가자들의 분향한화가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헌 회장과 김호현 운영위원이 다녀오다.

🚳 민가협 606회 목요집회

여는말 조순덕 상임의장

참여정부 3주년을 맞이하여 양심수 석방 촉구 발언-임기란 전 상임의장

참여정부 3주년 즈음한 촉구문 낭독-이영 회장

耐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평택주민들이 낸 평택미군기지 확장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하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예정지인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등 이덕규

2006년 2월

외 1,032명 주민은 지난해 3월 15일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및 LPP협정에 대해 평등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 ⇒금강산에서 21~23일까지 열린 제7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다
 - ① 6·15공동선언 발표 6돌을 맞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200명 규모의 특별 상봉을 한다.
 - ② 6·15,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특별화상상봉을 진행, 각각 60명씩으로 한다.
 - ③ 쌍방은 이산가족 생사, 주소확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
 - ④ 쌍방은 이산가족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한다.
 - ⑤ 남측은 화상상봉 등에 필요한 설비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이 문제를 위한 실무접촉을 3월 중에 가진다.
 - ⑥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는 6월 금강산에서 연다.

24

- ★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순천시청 앞에서 확약서 이행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하다. 농성에 앞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와 노동조합 탄압 중단 △확약서 이행을 위한 직접 대화 △확약서 이행점검과 감시를 위한 광주노동청과 순천시의 협의단 운영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명령 등을 요구함.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의하면 현대하이스코가 확약서를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지난 17일 조합원 22명을 포함 40여명의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고, 하루 전 통보를 받은 이들은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지내고 있음.
- 팽성읍 도두2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들과 사회단체 대표 등 80 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와 팽성대책위 주최로 '영농발대식'을 갖고 미군기지확장반대와 올 해도 어김없이 농사지을 것을 선포하다.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

장의 결의발언과 문정현 상임공동대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이규재 범남본 의장 등 덕담과 도두2리 이상열 이장의 엉농 발대식 선포문 낭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고 넓은 들녘에 생명이 싹을 틔울 것이라고 결의하다. 양심수 후원회에서는 권오헌 대표가 다녀왔음.

25 -----

- 耐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로 기소중지 중 수배조치 당한 전재환 민주노총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체포되다.
-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24-25일 개성에서 개최된 실무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5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에서 천명 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합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올해의 통일운동 을 전개해나가기로 하였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해내외 단체들과 인사들의 참여 속에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3.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일인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남과 북의 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 4. $6\cdot15$ 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 $6\cdot15$ 와 8.15 등을 계기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개최하고 개천절행사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계층별 공동사업들도 활발히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 5.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한국노인복지센터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북한의 공장기업소나 대학에 '명예인사', '명예학생'으로 등록된 '민족민주열사'들의 유가족 및 추모단체가 해당학교 및 공장방문 등 남북교류사업추진을 골자로 한 올해 통일사업계획안을 채택하다. 이보다앞서 박중기 회장의 정기총회 인사말, 강민조 유가협이사장의 축사가 있었고 의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에 공로패, 박영진 열사추모사업회와 김종수열사추모사업회에 감사패, 김영균 열사추모사업회에 모범상을 시상하다.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에서 독립운동 출신 인사 및 민족진영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 창 립 15주년 기념식이 열리다. 조문기 이사장의 인사말, 고은 시인, 송기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6년 2월

있었고 민족문제연구소 15년의 영상기록상영이 있었음. 이어 극단 '우금치'의 일제에 항거하는 민중항쟁을 그린 마당극의 축하공연이 있었고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공로패를, 김원웅열린우리당의원과 김삼웅 독립기념관 관장에게 감사패를 전하다. 마지막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국치 100년 사업 선포문'을 통해 '경술국치 100주년 일제수탈사 남북공동조사 사업"을 제안하다.

26-----

양심수후원회 2월 산행. 관악산을 오름.

2호선 낙성대역에서 13명이 모여서 관악산 낙성대능선-쉼터-사당능선-사당역 쪽으로 내려왔음. 사당능선 양지바른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쌀쌀한 날씨 때문에 일찍 산을 내려오다.사당역 근처 음식점에서 소개시간에 이어 박정희기념관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이며 4월혁명회 회원인 곽태영 선생의 시사강연이 있었음 - 신동철, 곽태영, 정동익, 김재선, 신현익, 김호현, 송창학, 신현부, 나순석, 나민지, 이용준, 김은, 김환진, 권오헌 함께함.

*2*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비정규직관련 법안을 전격통과시키다.
- ☎27-28일 양일간 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행사를 통해, 남측 9개 도시 13개 화상상봉실과 북측 평양 고려호텔 10개 상봉실에서 남 북 각기 40가족, 동반가족을 포함한 남측 가족 164명은 북측가 족 100명을 상봉하고 북측 가족 119명은 남측가족 192명을 상봉하다.
- ②27-28 양일간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남북은 제11차 남북철도・도로 실무접촉을 열고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개통 문제와 열차시험운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다.

2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북・해외 본부가 서울과 평양, 일본에서 임시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범민련의 활동 방향을 담은 '결정서'를 채택하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서대문구 충정로 경기대학교에서 임시공동의 장단회의를 개최하였고 내달 5일 9기 2차 중앙위원 총회를 열어 이날 채택된 결정서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결정서는 임시의장단회의 소집공고가 나간 지난 14일부터 남・북・해외 본부가 전화와 팩스를 주고받으며 논의했으며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되다.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해내외 온 겨레가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 대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2006년 임시 공동의장단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범민련은 올해를 〈3대 애국운동의 해〉로 정하고 〈"우리민족끼리"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는 구호 아래 3대 애국운동의 앞장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 2. 범민련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전 민족적인 연대연합으로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히 기념하는 것을 전통화할 것이다.
- 3. 범민련은 우리 민족의 영구분열을 꾀하면서 이 땅에서 기어이 핵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반대하여 거족적인 반미, 반전평화운동의 앞장에 서며 올해 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릴 것이다.
- 4. 범민련은 민족대단합운동을 활발히 벌려 (6·15민족공동위원 화)를 더욱 강화하고 광범한 통일 애국역량을 묶어 세워 전 민족적인 반 보수대연합을 형성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다.
- 5. 범민련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 범청학련 남측본부 와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 여나갈 것이며 각계 대중운동단체들과의 연대단합을 일층 강화하 여 조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제54차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국방개혁기본법안 폐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다. 평통사 황윤미 사무국장의 사회로 평통사 김판태 평화군축팀 팀장, 한총련 황유석 조국통일위원장의 규탄발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참가자 전원이 ★자형태로 늘어서서 "전략적 유연성 지원 위한 국방개혁법 중단하라", "대북선제공격연습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다. 이어 지난 13─15일 괌에서 열린 6차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SPI)에 대해 현지에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귀국한 평통사 유홍 국제국장의 활동보고가 있었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위원회가 "남북한의 화해증진을 위해 통일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통일관련 법제정비에 대한 종교인의 입장을 발표하다. 이들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 합의서, 6·15공동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비가 이 뤄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국회가 '남북기본합의서' 비준 동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악법 날치기 완전무효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다.